

망심 받아들이 참마음 잃으면 번뇌에 시달려



대승기신론을 통해 본 능엄경
대승기신론을 통해 본 원각경
전종식 지음
예학 펴냄
3만9천원, 3만원

대승기신론시리즈 두 번째 작품 '대승기신론의 이론을 근간으로 펼친 신세대 능엄경'은 표지서부터 불교경전이 아닌 일반 실용서와 같은 편안함 느낌을 전달해준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실용서는 아니다. 일반 독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자 원문 아래 한글 주석을 쉽게 풀이하여 수록한 신세대 경전이다.

대' 하며 해매고 있다. 부처님은 아난에게 바로 인간이 스스로의 마음이라고 착각하는 망심 속에 상주하는 진심이 바로 여래장(如來藏)임을 알려준다.

현대인 역시 늘 진심과 망심 사이를 오가며 참마음을 잃어버리고 번뇌하는 모습이 꼭 아난과도 같다. 인간은 누구나 기본적인 삶 그 이상의 진리를 찾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현대인은 수없이 많은 미혹사 벗어날 수 없는 채 한층 더 높은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며 그 괴리 속에서 번뇌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힐링'을 추구하는 많은 종교 서적이 나오지만 이 책은 단순 '힐링'의 차원을 넘어 철학 그 이상의 불교 학술서적으로 인정할 만 하다.

〈능엄경〉은 긴 제목만큼이나 내용도 길어서, 저자가 과거 주석한 〈원각경〉이나 〈금강경〉의 두 배에 달하는 분량이다.

저자의 또 하나 책인 〈대승기신론을 통해 본 원각경〉은 2008년 11월 발행한 지 2년만에 재출시된 보정판이다. 〈원각경〉은 대승기신론이란 탁월한 불교 이론을 통해 그 해석의 정사(正邪)를 밝혀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

은 정론서다.

〈원각경〉은 문수보살, 보현보살, 보안보살, 금강장보살, 미륵보살, 청정해보살, 위덕자재보살, 변음보살, 정제업장보살, 보각보살장, 원각보살장 등 12명의 큰 보살과 권속 10만여 명과 자리한 자리에서 불타와 12명 보살과의 대화를 통해 원각(圓覺)의 자리를 설한 경전이다. 원각(圓覺)-부처의 원만한 깨달음-이라는 궁극적 자리에 이르는 수행의 방법과 그 궁극의 자리가 어떠한 것인가를 상세히 조명하고 있다.

이 경을 〈대승기신론〉사상에 근거해 명확히 주석했으므로 〈원각경〉의 정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이 보

〈능엄경〉, 인간의 진심 어디있는지 조명 〈원각경〉, 12보살 대화로 원각자리 밝혀

정판에는 저자의 영역(英譯)문을 추가 보강하였는데 이는 처음 접하는 이들도 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 책은 불교이론을 어렵게 생각하는 일반인들도 쉽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저원문에 한글 주석을 상세히 달아놓아 말 그대로 '신세대 원각경'이다. 경전의 해석이 어렵고 무겁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오한 내면의 진리를 깊이 있게 다룬다는 점에서 독자층 역시 다양하다. 불교공부에 갓 입문한 일반인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스님, 출가 수행자들에게 더 없이 좋은 '지혜의 서

(書)'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불교의 진리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지식이요, 지혜가 아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마음으로 깨달아야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는 단순한 진리 즉, '원각의 진리'를 이 책에서 상세히 알려준다. 김주일 기자

▲저자 전종식은?

현재 (사)한국예절문화원 이사장이며, 대승기신론연구회 회장인 저자는 영등포공작창장을 거쳐 철도청 부산공작창장으로 봉직 한 후, 젊은 시절 과학기술분야에서 종사해온 공학도다.

저자는 40대 중반부터 부인 권유로 부처님 팔상륙을 탐독하면서 불교에 심취한 결과 불도(佛道)에 깊이 귀의해 인간의 내재적 정신세계를 탐구해왔다. 부인 남산민여사(현 사단법인 한국예절문화원 원장)와 합동으로 〈석가세존의 생애〉를 주제로 연작(9작품), 남산민불교자수연구발표전을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남해, 육사(陸士) 등에서 개최해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그는 '백련거사(百鍊居士)'라는 법명을 얻은 후 수많은 불교서적을 편찬했다.

이외에도 저자는 원효의 〈대승기신론〉이란 불교 이론으로 그 해석의 정사를 밝혀 주석한 〈능엄경〉뿐 아니라, 〈원각경〉, 〈금강경〉, 〈육조단경〉, 〈법성경〉, 〈종필의 선원제전집도서〉 등 경전 해석에 확고하고 명백한 기준을 세우고자 노력했다.

현대인에게 전하는 감로법문

진리의 말씀·법구경

승원 지음 | 창작시대 | 1만2천원



“온갖 생명 있는 것들을 해치면, 그것 때문에 고귀한 자는 되지 못한다. 온갖 생명 있는 것들을 해치면...”

“온갖 구성된 것은 무상하다고, 지혜를 가지고 볼 때에는, 온갖 고뇌를 싫어하게 된다. 이는 청정(淸淨)에의 길이다. 온갖 구성된 것은 고뇌라고, 지혜를 가지고 볼 때에는, 온갖 고뇌를 싫어하게 된다. 이는 청정에의 길이다. 온갖 구성된 것은 실체가 없다고, 지혜를 가지고 볼 때에는, 온갖 고뇌를 싫어하게 된다. 이는 청정에의 길이다.”

전국 사찰 앞 불구점 녹음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주옥같은 말씀 중 대부분이 바로 〈법구경〉에 나오는 말이다. 또한 사찰의 계사판이나 벽에 붙여있는 경구 역시 〈법구경〉의 내용이 많다. 그만큼 법구경은 꼭 불자가 아니더라도 가슴에 새길 진리

의 말씀들이 많다. 부처님이 팔리어를 사용해서 말한 423편의 시구를 2세기경 인도의 불교학자인 달마트라타가 선별해서 모아 놓은 것이 지금의 〈법구경〉이다. 덴마크의 파스벨은 이것을 '동양의 성서'라고 부를 정도로 내용이 실제적이며 구체적이고 깊은 사색이 깃들여 있어 불교의 입문서로도 통하는 경전이다.

〈법구경〉은 인간의 마음뿐 아니라 자연 질서에 관한 법을 설하고 있다. 그래서 법구경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연 질서를 돌아보면서 이에 순응하는 생활태도를 배울 수 있다. 이 책은 석존의 말씀을 비교적 원초적인 형태로 전승하고 있는 〈법구경〉을 현대인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풀어 설명한 것으로, 본문에 담긴 실례, 구체적이고도 깊은 사색은 물론 그 속에 숨은 불교의 오의(奧義)를 전한다.

현대 사회처럼 변화가 많은 시대 속에서 삶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품을 때, 그런 우리에게 잔잔한 호수 같은 차분함과 자기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사고 방식의 확립에도 충분한 뒷받침이 되어 줄 것이다. 김주일 기자

‘선다일어’ 경지 시어로 길어 올려

앞으라고요

석여공 지음 | 고요숲 펴냄 | 8천원



구름 불빛을 희롱하는데 / 철당간에 꽃 피면 알리 / 새들 날며 마른 혀 적시는 마음”

여공스님은 불바람을 다관에 우려 먹기도 하고 철당간에 꽃도 피운다. 날아가는 새들이 혀를 적시는 마음도 표현한다. 모두 다 참선수행을 통한 언어의 유희(遊藝)다. 스님의 차(茶) 사랑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자급자급 게 눈 꿀듯 하는 찻물을 식혀 / 다관에 넣고 불날을 우린다 / 불날을 우리면 무슨 향이 날까 / 말하자면 불날은 저절로 잘 우려진 차 맛이다.”

차의 오브제는 불도 되고 그 불날은 저절로 우려져 차가 되기도 한다. 매화꽃 피는 봄에게서 우전 차의 연한 맛이 나기도 한다. 시공을 넘나드는 서정성 깊은 시적언어를 시인 여공스님은 길어 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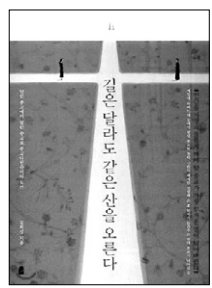
여공스님은 이번 시집에서 꽃도 의인화했다.

특히 여인에 비유한 꽃은 살아 움직이는 활발발(活潑潑)이 꿈틀거리는 문 열어 세상을 바라보았네 / 하늘

老 종교학자의 종교소통 개론서

길은 달라도 같은 산을 오른다

길희성 지음 | 휴 펴냄 | 1만3천원



이 책은 동서양 종교와 철학, 신학을 넘나드는 폭넓은 시야와 깊은 연구로 지식인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원로 학자이자 서강대 명예교수가 〈한겨레신문〉의 웹진 '휴심정'에 기고했던 글들을 조금씩 다듬고 보완해서 펴낸 것이다. 〈만들어진 신〉, 〈예수는 없다〉 등과 같이 '종교 없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저자는 종교다원주의자 입장에서 종교의 본질적 역할과 존재 이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현실 사회에서 종교가 가지는 한계를 인정하고, 제도적·도그마적 종교 이후 세상을 이끌 대안이 필요하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인간 본연의 순수한 영성을 회복하고 심화할 때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종교의 유무

를 떠나 서로의 종교와 문화를 이해하고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개인의 행복을 넘어 전 세계가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 전반에서 노(老) 종교비교학자가 학문적 탐구의 삶에서 걸어 올린 깊은 사유와 빛나는 해안으로 얻은 종교의 가치와 역할, 그리고 종교를 넘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과 조연이 인상적이다. 오늘날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지금까지 어느 종교도 인간의 고민과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고뇌 속에서 얻게 된 깨달음, 그리고 인류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제안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행복의 길. 깊은 영성 속에서 평생을 종교비교학자의 삶을 살았던 노(老)학자의 최종 목적지를 보여준다. 많은 종교 중 이 책은 특히 불교와 기독교 사이의 소통과 화합에 역점을 두고 있다. 심도학자의 도반들은 지성이 영성으로 승화되고 영성이 성숙한 사회적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정신으로 동서양 영성의 고전을 함께 읽으면서 삶의 지혜를 구하고 명상으로 진리를 내면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김주일 기자

탐과 종에 얽힌 설화 재조명

탐따라 돌고돌아

심재윤 글 | 박지윤 그림 | 파란자전거 펴냄 | 9800원



10가지의 탐과 종에 얽힌 설화 속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마음 깊은 곳에 소원과 믿음을 가지고 탐을 쫓거나 탐을 찾거나 종을 친다.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던지면

서까지 불교를 일으키고 싶어 했던 이차돈이 없었다면 신라 불교는 없었다. 그랬다면 세계인을 깜짝 놀라게 한 에베레스트 탄생되지 않았다.

아무리 아름다운 황금종이라도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기에 가차 없이 강물에 빠뜨린 스님의 이야기는 탐도 종도 모두 백성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해 준다. 저마다 살아온 삶과 바람들을 모아 우뚝 세운 탐과 그들의 마음을 담아 방방곳곳까지 울려 퍼지는 종소리는 천년의 세월

을 지나 지금까지도 오롯이 전달되고 있다.

‘설화 속 우리역사 시리즈’ 세 번째 책인 이 책은 잘 알려지지 않은 탐과 종에 얽힌 설화를 찾아내 역사 속 민중의 삶을 재조명했다. 삼국 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는 우리에게 삶이며 종교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전까지는 씨족공동체에 불과했던 나라가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왕 중심으로 바뀌었다. 탐 만드는 일은 대단히 큰 공사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따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돌을 직접 깎고 다듬는 일은 일반 백성이 했다. 큰 바위를 옮기고 자르고 다듬는 일은 무척이나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불려가 일했다. 힘들지만 사람들은 부처님 뜻을 기리고 나라를 위한다는 생각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탐과 종에는 서민들의 탐과 삶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탐과 종 10여 개에 얽힌 설화를 소개한다. 이와 함께 불교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전해졌는지, 탐과 종의 종류와 만드는 법, 탐에 얽힌 전통 문화 등 탐과 종을 둘러싼 조상들의 과학적 지식과 지혜를 설명해준다. 김주일 기자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시후 보험가입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삼보양초

삼보양초의 장점

- 1) 심지가 견고하며, 최고급의 파라핀으로 제작되며 그윽음이 적으며 오래 타입니다.
- 2) 냄새는 맑고 향기로우며, 촛물이 깨끗하고 투명하다. (최상품의 삼보향초)

삼보양초의 종류

- 1) 원기둥 홀초(대) 1박스 20개,9만원
- 2) 돈타레 홀 (중대) 1박스 40개9만원
- 3) 밀대 (중) 1박스 50개8만원
- 4) 등산불 (소) 1박스 40개.....9만원

- 삼보양초는 종도사찰에 필수적인 물품들을 종단차원에서 공급하여
- 품질은 우수하게, 가격은 저렴하게, 주문은 편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불교용품상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택배비 포함)
- 전화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사업자번호 : 615-82-71773 (한국불교재단)
주 문 전 화 : 010-9421-0772, 010-5789-6630
사업부계좌 : 농협 302-0587-1926-11 이창민

(사)대한불교삼보종 총무원 사업본부

참종 오봉사

제1기 학림모집

- 자격 : 대한민국 승려(종단, 성별, 연령불문)
- 비용 : 전액무료
- 기간 : 2013년 9월 ~ 11월(3개월간)
- 인원 : 5인

- 신청 : 2013년 8월 30일까지
- 입방 : 2013년 8월 31일 오전 10시

- 과목 :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반야심경, 발심수행장.

교재는 한국불교사와 반야심경은 각자 구입하고 나머지는 무료제공

일 과 표

오전 5시 예불과 정근	오후 3시 운력
오전 7시 아침공양	오후 5시 예불과 정근
오전 9시 수업	오후 7시 저녁공양
오전12시 점심공양	오후 8시 차담
오후 1시 휴식	오후 9시 취침

경기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산76번지 오봉사
문의 : 031) 834-2140 중무소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학과,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서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풍동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끼여있어 숙면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 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